

정보유출 우려 내부 감사 한계... '측근 인사' 비위 키워

진화하는 금융권 횡령사건

<중> 원인

내부 전산 통한 일상감사 형식적 한 지점서 장기근무 시스템 허점 금융권 "개별 횡령 적발 어려워" 사회 만연한 '한탕주의' 지적도

검사 등 일상감사는 당연히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며 "문제는 이 내부감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금융업계 특성상 내부 정보에 폐쇄적이고 외부 정보 반출에 민감하기 때문에 직원들도 이 문제를 잘 파악하지 못하거나 안다고 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 달 새 3건의 횡령 사건이 일어난 지역

농협의 조합장 및 임원 선출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장기 연임에 가능한 구조에 인사 또한 대부분 조합장이나 임원들의 측근들로 압암리에 채워 운영함에 따라 내부적인 감시 및 통제가 현실적으로 기능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국 시·군·구에 약 900여개 분포해 있는 지역 농협을 농협중앙회가 물리적으로 관리·감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한된 인력으로 제대로 된 감독을 하기는 어렵다는 것.

지역 농협 관계자는 "사실 규모가 작은 지점의 경우 많은 인력을 투입해 운영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업무 또한 정기 인사를 통해 순환 배치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한 직원이 같은 업무를 오래 맡게 되면서 각 지점의 속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허점을 발견하게 되면서 횡령과 같은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도 높다. 우리은행의 경우 직원의 횡령 기간인 6년 동안 금감원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11차례의 종합검사 및 부문 검사를 진행한 전적이 있기 때문이다. 사고 직후 금감원은 "검사에서는 은행의 건전성과 내부통제를 주로 보기 때문에 은폐된 개별 횡령 사건을 적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진 '한탕주의'를 무시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코로나19와 집값 폭등, 물가 상승 등으로 월급만으로는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불확실함에 주식, 가상화폐, 도박 등 이른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노리게 된다는 것이다.

횡령 사건을 저지른 대부분의 직원들이 거액의 돈을 주사이나 부동산 투기, 가상화폐 구매나 도박 등에 탕진했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하는 계기다. /오지현 기자

금융권 내부에서 역 단위의 횡령사건이 지속 발각됨에 따라 이를 방지할 내부 감사 및 통제 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들어 발생한 횡령 사건에 연루된 금융권 내부 임직원의 범행 기간이 우리은행 10년, 새마을금고 16년, KB저축은행 6년 등 결코 적지 않은 기간이었다는 점은 충분히 회사 내 감사를 통해 역대 규모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내부 감사로 이를 잡아내지 못했다는 반증이다. 신한은행, 우리은행과 같은 경우에는 내부 감사를 통해 횡령 사실이 드러났으나, 횡령 발생 자체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내부 통제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실제 우리은행 홈페이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영업점과 본부부서를 상대로 진행한 내부감사는 총 2,901건으로, 일상감사는 2,553건, 종합검사와 부문감사도 각각 196건, 152건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KB국민은행 또한 감사보고서에 지난해 총 3,164건의 일상감사를 진행했다고 작성했다. 광주은행 또한 매월 2~3번, 분기별로 1번 씩의 내부감사를 진행하며, 내부 전산 시스템을 통제 및 관리하는 부서도 있어 거의 내부 상황을 상시 감사하는 것과 닮았다고 운영된다.

이에 은행업 종사자 이 모씨(29)는 "은행은 사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하는 곳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영업점 같은 곳은 시제 및 서류



농협전남본부부는 6일 구내식당에서 관내 시군지부장 조찬간담회를 갖고 쌀 소비확대를 위한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가졌다. /농협전남본부 제공

전남농협, '쌀 소비확대' 아침밥 먹기 캠페인

농협전남지역본부부는 6일 구내식당에서 관내 시군지부장 조찬간담회를 갖고 쌀 소비확대를 위한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관내 시군지부장들은 쌀 소비 감소가 식량 안보와 직결되는 쌀 산업을 심각성을 느끼고, 쌀 소비확대를 위한 소비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내 쌀 산업은 심각한 공급과잉 추세로 특히 작년은 비 재배면적 증가와 작황 호조로 생산량이 증가했다. 올해 두 차례의 시장격리를 통해 27만톤의 쌀을 격리했으나 산지쌀값은 지난해 수확기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전남농협 쌀 재고가 6월 말 기준 13만 7,000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9만 5,000톤

(226.2%)이 증가해 재고로 남아있는 상태이며, 특히 올해는 추석도 빠르고 오는 8월에는 햅쌀이 나올 예정이라 더 큰 쌀값 파동으로 이어질까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박서홍 본부장은 "불규칙적인 쌀 수급과 지속적인 소비 감소로 우리나라 주식인 쌀 산업이 붕괴에 직면해 있다"며 "전남농협 임직원은 쌀 소비확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 식량안보를 지키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성진 기자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 광주 대표 선발전 참가자 모집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제14회 대통령배 아마추어e스포츠 대회(이하 KeG)에서 광주시 대표 선수 선발을 위한 '대통령배 KeG 광주대표선발전' 참가자를 모집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선발전은 단체종목인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카트라이더(개인전)까지 총 3개 정식 종목의 대표를 선발한다.

예선은 오는 23일과 24일 이틀간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30일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본선 종목 중 리그 오브 레전드 및 카트라이더 종목은 당일 광주이스포츠경기장 공식 유튜브에서 실시간 중계로도 만날 수 있다.

탑전 1위팀 및 개인전 1, 2위 선수는 광주시를 대표해 오는 8월 20~21일 창원시에서 진행되는 전국단위 결선에 진출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7일까지며, 광주이스포츠경기장 홈페이지에서 자격요건 등 참가에 필요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홍승현 기자

"컴퓨터활용능력 자격 취득 시 가점 혜택"

광주상의 홍보활동

광주상공회의소는 지자체 산하 공기업 및 출연기관, 광주·전남권 대학 등을 방문해 '국가 기술자격 취득자 우대'를 위한 홍보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00여개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과 일반 기업체 사무직 입사 시 우대 및 가점 혜택이 주어지며, 일부 대학에

서는 장학금 지급 및 학점 부여 등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은 사무업무 시 필수 프로그램인 스프레드시트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지역 공기업 등에서 직원 채용 및 재직자를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자를 우대한다면, 자격 취득자의 취업 기회가 대폭 확대되고 지역의 고용률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연수 기자

www.aroma-life.co.kr

Aroma Life
기능성 속옷의 명가 | (주)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속옷의 名家

쾌적/편한/예쁜/기능성 속옷은 "정말" 있습니다.

아모라이온

브라+슈트+거울
5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

아모라이온 롱바디

브라+슈트+거울+래깅스
5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

비비드아모르

래닝+팬츠
2단 일체형 남성용 슈트

아실리 바디슈트, 슈에뜨, 루디아

블랙온사 바디 슈트의
온사 레이스 품평회 1등

느트러져 있는 살들을 제자리로 정돈 시켜 완벽한 몸매로!

1.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5개국 특허 체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2.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발습 GOOD!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육각형 사용
3. 실크프로테인아미노산가공 원적외선 효과

광주본사 | 전문상담 및 사업 문의: 1588-2219 | 명품관(사적문의): 070-4909-4660 |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경열로 235 V&G빌딩 서울본점 | 전문상담 및 사업 문의: 02-882-4569 | 명품관(사적문의): 070-7726-1100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8길 5 축복빌딩